

# 太賢의 『菩薩戒本宗要』 유통본 서지조사 및 대조·연구

A Comparative and Bibliographical Research for Taehyun's *Bosalgyebonjongyo*

최 중 남 (Choi, Jong-Nam)\*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2.4 身延山大學校 圖書館 소장     |
| 2.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서지조사 내용 | 3. 『보살계본종요』 유통본 대조·연구 |
| 2.1 高野山大學 圖書館 소장        | 4. 나가는 말              |
| 2.2 大正大學 圖書館 소장         | <참고문헌>                |
| 2.3 大須文庫 소장             |                       |

## <초 록>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태현(太賢, 8세기)은 율사·선사·법사로서 화엄·종관·유식·계율·정토 등에 대한 55여 부·122여 권의 주석서들을 찬술하였다. 이들 주석서들 중에서 아쉽게도 현재는 5부·14권만 남아있다. 태현은 인도에서 찬술된 경·율·론 삼장(三藏)들에 대해서 불교의 시대별·지역별·학과별의 사상들을 자재롭게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주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되는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1권)는 태현이 『범망경(梵網經)』(2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지(受持)와 위범(違犯)의 요체를 신경의문(申經意門)·능소성문(能所成門)·수행차별문(修行差別門)의 세 가지 문[三門]으로 주석하고 있다. 태현은 삼문에서 대승사상인 화엄, 정토, 반야·종관, 여래장, 유식, 선사상 등의 사상과 관련 경·론들을 인용·주석하여 자재롭게 계본들을 중요(宗要)하고 있다. 『보살계본종요』는 수지자들에게 교과서와 같으며, 지남(指南)이 되는 찬술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동북아시아에서는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주석서들로서 31부·49권이 찬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된 계본(戒本, prātimokṣa)에 대한 사상적 전개와 서지학적 유통과정에 대한 토대연구를 위하여 2012년부터 「고려교장 결집 및 DB 구축 사업」에서 조사·연구된 한국·일본의 필사본·목판본·목활자본들의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불교서지학적 조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보살계본종요』가 각국에서 필사, 판각, 목활자, 금속활자화되어 전래·유통되는 과정에서 태현의 원의(原義)와는 다르게 교감이 진행되고 있어 문헌학적인 대조·연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필사본(2종)·목판본(2종)·목활자본(2종)은 총 6종(미조사된 8종은 각주 31에 소개)으로서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영인된 판본들이다. 그리고 문헌학적인 대조·연구는 眞福寺의 大須文庫本, 身延山大學校 도서관본, 韓國高僧集(新羅時代 2)本, 그리고 韓國佛教全書本과 大正藏본들을 사용하여 고찰하였다.

要語: 보살계본종요, 태현, 身延山大學校, 大須文庫, 韓國佛教全書, 韓國高僧集, 大正藏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acaryachoi@hanmail.net)

접수일: 2018년 4월 26일 최초심사일: 2018년 5월 27일 심사완료일: 2018년 6월 5일  
서지학연구, 제74집, 53-69,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4.53]

<ABSTRACT>

One of representative monks of Silla period, as a Preceptor, Seon master, Dharma teacher, Taehyun wrote the annotated commentaries for about fifty-five collections and one-hundred twenty two books of Hwa-eom (華嚴), Junggwan (中觀, Madhyamaka), Yusig (唯識, Yogācāra), Gyeyul (戒律, Vinaya), Jeongto (淨土) and so forth. Unfortunately, there are now only five collections and fourteen books left among these.

Taehyun annotated in detail and systemized the Buddhist thoughts divided into times, regions, and schools based on the Tripiṭaka (*Vinaya · Sūtra · Abhidharma Piṭaka*) made in India.

In the *Bosalgyebonjongyo* (菩薩戒本宗要), he annotated the gist of memorizing and transgressing the precepts that were mentioned in the Sutra of Brahma's Net (II) with three gates of Singyengeumun (申經意門), Neungsoseungmun (能所成門), and Suhaengchabyeolmun (修行差別門). Taehyun explained the three gates summarizing many Prātimokṣa (戒本) while quoting sutras and treatises related to the Mahāyāna thoughts of Hwa-eom, Junggwan, Yusig, Seon, and Jeongto etc. The *Bosalgyebonjongyo* is known like a compass and a text book for practitioners. Therefore there are about thirty-one collections and forty-nine books as the annotated commentaries of the *Bosalgyebonjongyo*.

In this paper, I came across the buddhist bibliographical researches for the *Bosalgyebonjongyo* of Handwritten manuscript, the woodblocks and woodblock prints of Korea and Japan which were researched and studied in the Database construction business and *Goryeogyojang* Collection of 2012 for the basic research of the bibliographical distribution process and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prātimokṣa in East Asia. And also I compared philologically these sources because they have been differently published to the original intention of Taehyun in the distribution process of handwriting, carving, printing the *Bosalgyebonjongyo*.

The Handwritten manuscript (two styles), the woodblocks (two styles), the woodblock prints (two styles) which I introduced in this paper, total six styles (I illustrated eight styles not researched in the annotation of 31) are the block books made from 13C to 17C.

For the philological comparative study, I considered the sources of Jinboksa daesumungo (眞福寺 大須文庫), Shinyeansan Daehak (身延山大學) Library, Daejeongjang (大正藏), *Hankuk-Bulgyo-Jeonseo* (韓國佛教全書), and *the Korean Eminent Monk's Collections* (韓國高僧集, Silla period, 2).

Key words: *Bosalgyebonjongyo*, Taehyun, daesumungo, *Hankuk-Bulgyo-Jeonseo*, *the Korean Eminent Monk's Collections*, Daejeongjang

## 1. 들어가는 말

불교의 교학은 경·율·론 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장 중에서 율장에는 악(惡)을 멈추게 하고(止惡), 멀리하게 하는(離惡) 다양한 계(Ṭsīla, Ṣsīla, 尸羅)와 승가(Ṭsaṅgha, Ṣsaṅgha)를 유지하고, 출가자들의 수행을 위한 다양한 규범의 율(vinaya, 毘那耶)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시대별 불전 중에서 초기불전인 잡아함경 『계경(戒經)』<sup>1)</sup>에는 다음과 같이 계율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계를 지키는 비구는 근본을 구축하고, 의지할 바를 구축하여 마음에 믿음과 기쁨을 얻고, 믿음과 즐거움을 얻은 뒤에는 마음에 환희·쉽·즐거움·적정·삼매·여실히 앎과 봄·싫어하여 떠남·욕심을 떠남·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모두 빨리 무여열반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계를 구축하여 실천수행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무여열반(無餘涅槃, Ṭanpādisesa nibbāna, Ṣnir/anupadhiṣeṣa-nirvāṇa)을 증득함을 언급하고 있다.<sup>2)</sup> 그리고 중아함경(Dīgha Nikāya II)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sup>3)</sup>에서는 번뇌를 소멸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방법의 하나로서 계를 먼저 수행하면 이어서 정(定, Ṭsamādhi)과 혜(慧, Ṭpañña)가 성취되는 삼학(三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실로 세존께서는 왕사성 기자굴산(耆闍崛山)에 계셨다. 그곳에서 비구들에게 몇 번이고 다음과 같은 법화(法話)만을 설하셨다. ‘이와 같은 것이 계(戒)이다. 이와 같은 것이 정(定)이다. 이와 같은 것이 혜(慧)이다. 계를 원만히 수행한 정은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다. 정을 원만히 수행한 혜는 큰 과보와 큰 공덕이 있다. 혜를 원만히 수행한 마음은 모든 번뇌로부터, 즉 욕루(欲漏)·유루(有漏)·견루(見漏)·무명루(無明漏)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불교에 있어서 계율은 교학과 실천·수행 면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다. 이에 계율은 시대별·지역별 불교로 발전·전개되면서 율장들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들이 찬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라시대 학승으로서 원측(圓測, 613-696)문화의 도증(道證, 692년에 귀국<sup>4)</sup>)의

1) 大正藏2, 129上18-21: 持戒比丘根本具足。所依具足。心得信樂。得信樂已。心得歡喜息樂寂靜三昧如實知見厭離離欲解脫。得解脫已。悉能疾得無餘涅槃。

2) 최종남, “유가행과 문헌에 있어서 열반의 종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2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2), 22-25 참조.

3) 『Mahāparinibbāna Suttanta』, DN.II, 81: tatra sudam bhagavā rājagahe viharanto gijjhakūṭe pabbate etad eva bahulam bhikkhūnam dhammim katham karoti: iti sīlam iti samādhi iti pañña, sīla paribhāvito samādhi mahapphalo hoti mahānisamsa, samādhi-paribhāvita pañña mahapphalā hoti mahānisamsā, pañña-paribhāvita cittam sammad eva āsavehi vimuccati, seyyathidaṃ kāmāsava bhavāsava dīṭṭhāsava avijjāsava ti; 大正藏1, 12上17-23. 최종남, “戒·定·慧 三學 수행에 관한 연구,” 『僧伽』 제22호(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06), 105 참조.

4) 『삼국사기』 권제8, 新羅本紀 孝昭王 元年條(『역주 삼국사기』 1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98): 孝昭王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화엄사상과 유식사상을 연찬하고,<sup>5)</sup> 율장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청구사문(靑丘沙門),<sup>6)</sup> 신라유가조(新羅瑜伽祖),<sup>7)</sup> 혹은 동국의 법사<sup>8)</sup> 등으로 칭하고 있는 태현(太賢, 혹은 大賢,<sup>9)</sup> 8세기)이 찬술한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에 대한 불교 서지학적 및 대조·연구를 하고자 한다.

태현에 대한 성(姓), 생몰연대, 향관(鄉貫)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sup>10)</sup> 그러나 태현은 경주(慶州) 남산(南山) 용장사(茸長寺)에서 주석하였으며,<sup>11)</sup> 호는 청구사문이고, 태현은 휘(諱)라는 기록만 남아 있다.<sup>12)</sup>

태현에 대해서 『범망경상권고적기강의(梵網經上卷古述記講義)』<sup>13)</sup>와 『삼국유사』<sup>14)</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태현은 소주(疏主)의 휘명(諱名)이다. 이조(異朝)에서는 율사(律師)·선사(禪師)·법사(法師)의 삼사(三師) 호(號)를 세우며 이는 법사의 호이다. ‘종요(宗要)’의 서(序)에 ‘태현법사’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  
 “태현은 지혜와 변제가 정밀하고 민첩하여 무슨 일이든 결택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였다.”

이와 같이 태현은 중국 등의 지역에서 구법이 아닌 자국인 신라에서 경·율·론 삼장에 대한 변재함으로 율사·선사·법사로서 후학지도와 주석서 찬술을 역참하였다.

태현은 생애동안 경·율·론 삼장에 대한 주석서들로서 『화엄경고적기(華嚴經古述記)』, 『열반경

… 元年(692년) 八月 以大阿浪元宜爲中侍 高僧道證自唐廻 ; 생몰연대와 찬술서에 대해서는 金知見·蔡印幻編, 『新羅佛敎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70 참조.

- 5) 『梵網經上卷述記述鈔』卷1上, 日本大藏經20, 13上13-15: 太賢者 有人云 玄奘三千門徒七十人達者隨一圓測法師門弟道證之弟子 今太賢也 今師初習華嚴 後入法相 ….
- 6) 『삼국유사』, 大正藏49, 1010上8-9: 賢嘗自號靑丘沙門.
- 7) 『삼국유사』, 大正藏49, 1009下25: 瑜伽祖大德大賢 ….
- 8) 『大賢法師義記序』, 大正藏45, 915中1: … 卽東國大賢法師其人也.
- 9) 휘명(諱名)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과 기록들에서는 태현(太賢)과 대현(大賢)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의천(義天, 1055-1011)의 『新編諸宗教藏總錄』(韓佛全4, 690上4), 일본에서 필사된 『보살계본종요』의 身延山大本(1前1)과 大須文庫本(1前1) 등에서는 태현으로, 그리고 『삼국유사』(일연(一然), 1206-1289; 大正藏49, 1009下25), 『보살계본종요』가 수록된 韓國高僧集(新羅時代2, 503·1), 卍續藏經(60套2冊, 179前1), 大正藏(45, 915上16) 등에서는 대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헌들 중에서 찬술자의 생몰연대와 가장 가깝고, 그리고 고층 문헌에 속하는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된 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채인환, 『韓國佛敎戒律思想研究』(I)(서울: 도서출판 토방, 1997), 504-506 참조.
- 10) 『菩薩戒本宗要纂註』卷上, 日本大藏經21, 2下5-6: 太賢者. 要主之名. 諸僧史之中未見載傳記. 以故不識姓氏何如; 일본 가마쿠라(鎌倉)시대의 승려 교넨(凝然, 1240-1321)이 태현에 대한 행장으로서 『태현법사행장(太賢法師行狀)』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이 행장은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다. 김천학,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70집(수원: 한국서지학회, 2017), 207 참조.
- 11) 『삼국유사』, 大正藏49, 1009下25: 瑜伽祖大德大賢住南山茸長寺.
- 12) 『梵網經上卷古述講義』第1, 日本大藏經20, 3下4-5: 太賢者疏主諱名也.
- 13) 『梵網經上卷古述講義』第1, 日本大藏經20, 3下4-6: 太賢者疏主諱名也. 異朝立律師禪師法師三師號. 此法師號也. 宗要序號太賢法師故.
- 14) 『삼국유사』, 大正藏49, 1009下26-27: 賢惠辯靜敏. 決擇了然.

고적기(涅槃經古迹記)』, 『법화경고적기(法華經古迹記)』, 『금강명경고적기(金剛明經古迹記)』 등을 비롯하여 무려 55여 부·122여 권<sup>15)</sup>을 찬술하였다. 아쉽게도 이들 주석서 중에서 현존하고 있는 주석서들은 5부·14권<sup>16)</sup>으로서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 『보살계본종요』,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약사경고적기(藥師經古迹記)』, 『기신론내의약탐기(起信論內義略探記)』만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보살계본종요』와 『범망경고적기』<sup>17)</sup>는 동북아시아에서 많은 주석서가 찬술되었다.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주석서들은 31부·49권이 찬술되었다.<sup>18)</sup>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현이 찬술한 주석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석된 『보살계본종요』의 유통본들을 서지학적 조사와 각 필사본 및 판본들에 대한 대조·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고려교장 결집 및 DB 구축사업』<sup>19)</sup>에서 불교 서지학적 조사와 연구를 한 조사표를 중심으로 『보살계본종요』의 유통본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문헌학적인 대조·연구에 의해 태현의 원의(原義)에 가깝게 고찰하고자 한다.

## 2.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서지조사 내용

『보살계본종요』는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第十(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약칭: 『범망경(梵網經)』,<sup>20)</sup>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 『보살계경(菩薩戒經)』 등, 이하 『범망경(梵網經)』)<sup>21)</sup>을 주석한 찬술서이다. 대승보살계가 수록되어 있는 경론들을 분류하면 유가계(瑜伽戒)와 범망계(梵網戒)로 대별된다. 유가계는 미륵(Maitreya) 보살이 설한 내용으로서 유가행과의 초기문헌인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Yogācārabhūmi)』 <보살지(菩薩地, Bodhisattvabhūmi)>·

15) 金知見·蔡印幻 編, 『新羅佛教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71-75; 최창술, “태현의 계율사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8), 23-25 참조.

16) 조명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서울: 경서원, 1962), 182-183; 金知見·蔡印幻 編, 『新羅佛教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71; 채인환, 『韓國佛教戒律思想研究』(I)(서울: 도서출판 토방, 1997), 523 참조.

17) 조명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서울: 경서원, 1962), 186-187 참조.

18) 채인환, 『韓國佛教戒律思想研究』(I)(서울: 도서출판 토방, 1997), 570-572; 김친학,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70집(수원: 한국서지학회, 2017), 216-218 참조.

19) 본 사업은 (사)고려대장경연구소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로서 대각국사 의천이 경·율·론 삼장들은 석경과 장경류 등에 각각 수록되어 전래되고 있지만 중국(唐·宋·遼)과 한국(고려·신라)에서 찬술된 삼장들에 대한 주석서인 장소(章疏)들은 어느 장경류에도 입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산일의 우려가 있어서 선종(宣宗) 7년(1090) 8월에 이들 주석서들을 수집·정리하여 편찬한 『新編諸宗教藏總錄』(『고려교장』, 『교장총록』, 『의천록』, 『총록』 등으로 약칭)에 수록되어 있는 총 1,010부·4,857권을 결집하고 DB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제1차 사업기간: 2012년-2016년, 제2차 사업기간: 2017년-2019년, 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협력기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신편제 종교장총록』은 韓佛全4(680-697)와 大正藏55(1165-1178)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20) 승장(勝莊)은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에서 『범망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범망경술기』, 韓佛全2, 114下17-19: 所言梵網經者 此一部之都目 觀梵王之羅網因說此經 故言梵網經者常也.

21) 大正藏24, 997上1-1009下26.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등에, 그리고 범망계는 노사나(Vairocana) 불이 설한 내용으로서 「범망경」·「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등에 각각 수록된 보살계본(Bodhisattva-prātimokṣa)들을 칭하여 유가계와 범망계라고 한다.<sup>22)</sup> 이들 중에서 범망계에 속한 「범망경」을 주석한 것이 「보살계본종요」이다.

「범망경」은 卷上·下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에서는 노사나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십발취심(十發趣心), 십장양심(十長養心), 십금강심(十金剛心), 십지(十地)에 대해서, 그리고 권하에서는 승속(僧俗)이 모두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받아 지닐 수 있는 십중금계(十重禁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등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망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학(戒學)은 대승 불교사상이 깊이 응축되어 있어서 동북아시아에서 약 91부가 주석되었다.<sup>23)</sup> 91부 중에서 신라의 원효(元曉), 승장(勝莊), 의적(義寂), 현일(玄一), 단목(端目), 원승(圓勝), 태현 등에 의해 13부·24권이 각각 주석·찬술되었다.<sup>24)</sup>

「보살계본종요」는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살계본종요」에서는 「범망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지와 위범의 요체를 신경의문(申經意門)·능소성문(能所成門)·수행차별문(修行差別門)의 세 가지 문으로 시설하여 밝히고 있다. 첫 번째 문인 신경의문에서는 경명을 주석하여 경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인 능소성문에서는 보살계를 수지할 수 있는 근기의 상(相)과 수지할 법인 보살계의 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인 수행차별문에서는 수행의 방법을 다시 네 가지 문으로서 선사(善士)를 친근히 할 것을 권하는 친근선사문(親近善士門), 정법(正法)을 요청하여 듣기를 권하는 청문정법문(聽聞正法門), 이치대로 사유할 것을 권하는 여리작의문(如理作意門), 설법한대로 수행할 것을 권하는 여설행행문(如說行行門) 등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살계본종요」의 내용들을 과목 및 소제목으로 자세히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sup>25)</sup>

#### 序偈

#### 제1 申經意門

제2 能所成門, 1. 能成相門, 2. 所成相門, 1) 受不同分相, 2) 犯不同分相, 3) 捨不同分相

제3 修行差別門, 1. 親近善士門, 2. 聽聞正法門, 3. 如理作意門, 4. 如說行行門, 1) 護正念門,

2) 波羅蜜多攝門, (1) 總性攝門, (2) 別相攝門, 3) 輕重性門, 4) 持犯相門, (1) 總相門, (2) 別相門, (3) 究竟門.

이와 같이 「보살계본종요」는 주석서의 명칭에서 “종요(宗要)”라고 칭하고 있듯이 「범망경」에서

22) 한명숙 옮김, 「범망경설기」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17-18 참조.

23) 加藤觀澄 譯, 「梵網經」 (東京: 大東出版社, 1930), 310-312 참조.

24) 목정배, “해제.” 「범망경설기」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1994), 15 참조.

25) 채인환, 「韓國佛教戒律思想研究」 (I) (서울: 도서출판 토방, 1997), 599; 최장술, “대현의 계율사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8), 28-29 참조.

설하고 있는 보살계본에 의거하여 대승보살계의 대강(大綱)을 정립한 율문(律門)으로 인하여 31부·49권이 말소(末疏)로서 주석·찬술되었으며,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많은 필사와 판각이 이루어졌다.<sup>26)</sup>

• 「보살계본종요」의 목판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菩薩戒本宗要」, 延寶3(1675년), 高野山大學 圖書館 소장.
- ② 「菩薩戒本宗要」, 延寶3(1675년), 大正大學 圖書館 소장.
- ③ 「菩薩戒本宗要」, 韓國高僧集(新羅時代 2), 1974, 503-526.<sup>27)</sup>

• 「보살계본종요」의 필사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菩薩戒本宗要」, 刊記가 없음, 大須文庫<sup>28)</sup> 소장.
- ② 「菩薩戒本宗要」, 元亨4(1324년), 大須文庫 소장.

• 「보살계본종요」의 목활자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薩戒本宗要」, 慶長8(1603년), 身延山大學 圖書館(청구기호: ㉠B30-7-B, 386-1).
- ② 「薩戒本宗要」, 慶長8(1603년), 身延山大學 圖書館(청구기호: ㉠B30-7-B, 387-1).

• 「보살계본종요」가 수록된 활자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菩薩戒本宗要」, 卍續藏經 第六十套 2冊, 179前·上1-183後·上3.<sup>29)</sup>
- ② 「菩薩戒本宗要」, 大正藏45, 915上16-918上24.<sup>30)</sup>
- ③ 「菩薩戒本宗要」, 韓佛全3, 478下1-483上20.

• 「보살계본종요」의 한글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채인환, 「韓國佛教戒律思想研究」(I). 서울: 1997, 599-661.

본 논문에서는 2012년부터 「고려교장 결집 및 DB 구축사업」에서 불교 서지학적 조사·연구를

26) 조명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서울: 경서원, 1962), 184-185; 채인환, 「新羅 大賢法師研究(III)」 「불교학보」 제21집(서울: 불교문화연구원, 1984), 48 참조.

27) 본 판본은 중국에서 판각된 판본을 복사하여 韓國高僧集에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본 판본에 대한 구체적인 서지학적 정보는 없다.

28) 大須文庫는 大須本, 大須文庫本, 眞福寺本이라고도 칭한다. 大須文庫는 日本 名古屋에 있는 眞言宗智山派 別格本山의 大須觀音 사찰(일명 北野山 眞福寺 寶生院이라고도 칭함)에 있음.

29) 時寬文11(1671年)辛亥年夾鐘下浣泉涌沙門覺雲謹誌.

30) 延寶3(1675年)刊宗教大學藏本.

한 조사표를 중심으로 일본의 대학, 사찰, 문고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13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의 총 6종으로서 2종의 목판본, 2종의 필사본, 그리고 2종의 목활자본들에 대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1)</sup>

## 2.1 高野山大學 圖書館 소장<sup>32)</sup>

표지서명: 無, 권수제: 菩薩戒本宗要 一卷, 판심제: 戒本, 권말제: 菩薩戒本宗要 一卷, 저자: 靑丘沙門太賢撰, 판중: 목판본, 간사처(자): 村上勘兵衛, 간사년: 延寶3(1675년), 장정: 선장(5針綴), 장면: 1張2面, 크기: 25.9×16.3cm, 권차: 1卷1冊, 장수: 23張, 반광: 24.1×14.0cm, 변란: 사주단면, 행자수: 8行16字, 판구: 상하대흑구, 어미: 상하내향 흑어미, 삽화: 無, 계선: 無, 지질: 倭楮紙, 종이두께: 0.05-0.06mm, 발폭/축수: 3.1cm/21축, 색차값: L80.6-81.7 a+1.7-1.0 b+15.8-14.7, 청구기호: 1-23ボ光-54, 구성: 上科文・下本文, 현토: 본문에 오후리가나(送り假名)로 현토됨, 하말의 刊記: 延寶三乙卯年林鍾胡村上勘兵衛刊行, 표지: 黃紙・黃絲.

## 2.2 大正大學 圖書館 소장<sup>33)</sup>

표지서명: 菩薩戒本宗要 完, 권수제: 菩薩戒本宗要 一卷, 판심제: 戒本一, 권말제: 菩薩戒本宗要 一卷, 저자: 靑丘沙門 太賢撰, 판중: 목판본, 간사처(자): 村上勘兵衛 刊行, 간사지: 林鍾胡, 간사년: 延寶3(1675년), 장정: 선장(5針綴, 보라색끈), 장면: 1張2面, 크기: 27.1×17.6cm, 권차: 1卷1冊, 장수: 25張(서문 2張・본문 23張), 반광: 24.0×13.9cm(본문: 3.6-3.8cm), 변란: 사주단면, 행자수: 8行16字, 판구: 상하대흑구, 어미: 상하내향 흑어미, 삽화: 無, 계선: 無, 지질: 倭楮紙, 종이두께: 0.06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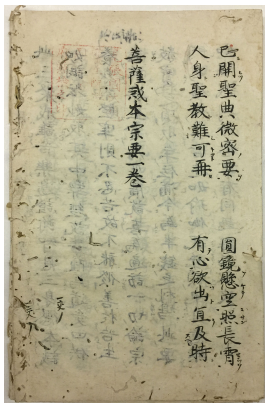
31) 『고려교장 결집 및 DB 구축사업』에서 미조사된 판본 및 사본들은 다음과 같다(본 문헌 및 서지 정보들은 김천학,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70집(수원: 한국서지학회, 2017), 214-216을 참조 및 재인용한 것임). ① 西大寺 소장, 【注記】袋綴獎(25.3×19.0cm), 【奥書】(本奥書・別筆1)貞和三年(1347년)丁亥十二月廿三日於西大寺一室草了英心(同筆)刊時慶長十六年仲夏十八日仙証良識書之也(別筆2)南都不退寺高円【備考】無界, 返点(墨), ② 東寺 觀智院 소장, 【書目ID】00014452, 【史料種別】貴重書(台紙付寫眞), 【請求記號】菩薩戒本宗要 正平十四年(1359년)叡空奥書本, 【原藏者】東寺 觀智院, ③ 東大寺 소장, 菩薩戒本宗要 一卷 正平十四年(1359년) 西大寺 계통. (상기의 정보들은 東京大 史料編纂所에서 소개한 서지 정보임.) 그 외 일본의 기관, 대학 도서관, 사찰 등에 소장되어 있는 『보살계본장요』는 다음과 같다. ④ 國文學研究資料館 소장, 간행년: 1645년, 권차: 1冊, ⑤ 龍谷大學 圖書館 소장, 간행년: 1671, 권차: 1冊, ⑥ 東洋大學哲學堂 圖書館 소장, 간행년: 1675년, 권차: 1冊, ⑦ 藥師寺 金藏院 소장, 사본, 간행년: 1722년, 권차: 2冊, ⑧ 東寺 觀智院 소장, 간행년: 1162년, 장정: 卷子本, 지질: 楮紙, 간기 및 주기사항: 永曆二年(1162년)九月十日亥刻許/奉書了 仏了序說之, 一交了(朱書)/同月十二日未刻許移点了/(別筆)/觀智院 永曆二年 墨点(假名), 同月十二日未刻許移点了/(別筆)/觀智院(⑧의 서지 정보는 김천학 교수가 『서지학연구』 제70집에 소개하지 않은 정보이다. ⑧의 서지 정보는 본 논문을 위해서 김천학 교수가 제공해 준 정보이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32) 본 판본은 촬영본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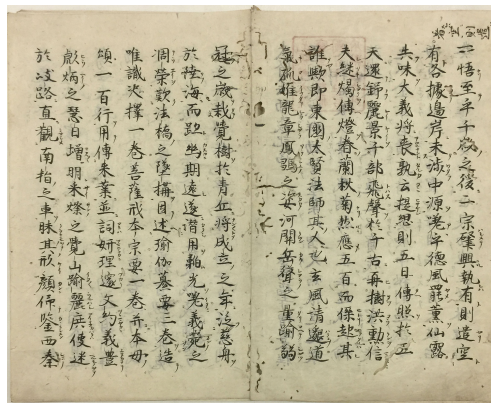
33) 본 판본은 촬영본이 없음.

발폭/축수: 3.0cm/19축, 색차값: L79.7 a+1.6 b+15.3, 청구기호: 1182/69/1, 인가: 大正大學附屬圖書館-OCT.1.1981/A36325(20장), 淨土宗圖書館藏本(圓朱印), 大坂市 東區 本町4丁目 天性寺 住職 郷俊定 寄贈(四角朱印), 표지참지: 기증인: “1部 第 函 第5/47號 1部 1冊/淨土宗圖書館藏書/大正6年 9月22日 郷俊定 寄贈”, 門外禮一不/獅子吼, 書根題: 戒本 全, 구성: 上科文・下本文, 현토: 본문에 오꾸리가나(送り假名)로 현토됨, 하말의 刊記: 延寶三乙卯年林鍾胡村上勘兵衛刊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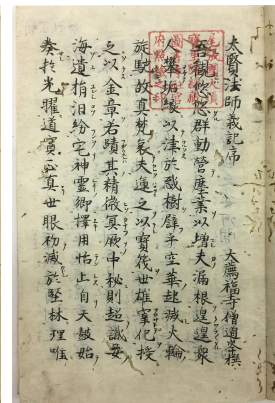
## 2.3 大須文庫 소장<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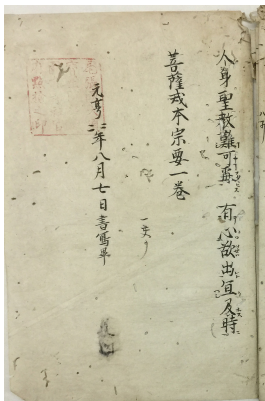
[大須文庫본① 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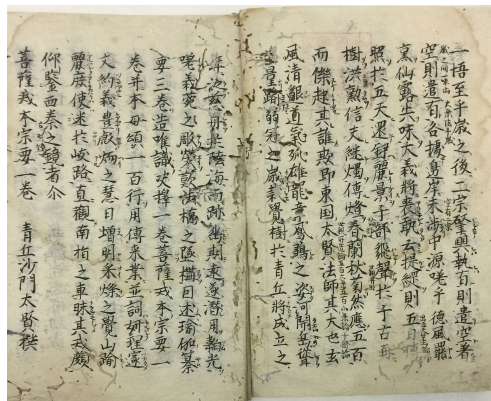
[大須文庫본① 序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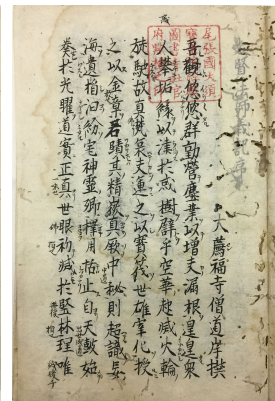
[大須文庫본① 序]



[大須文庫본② 권말]



[大須文庫본② 序말·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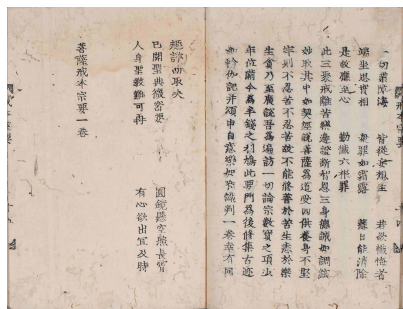
[大須文庫본② 序]

표지서명: ①②菩薩戒本宗要, 권수제: ①②菩薩戒本宗要記序, 권말제: ①②菩薩戒本宗要 一卷, 저자: ①②靑丘沙門太賢撰, 판중: ①②필사본, 간사처(자): ①②無, 간사년: ①無, ②元亨4(13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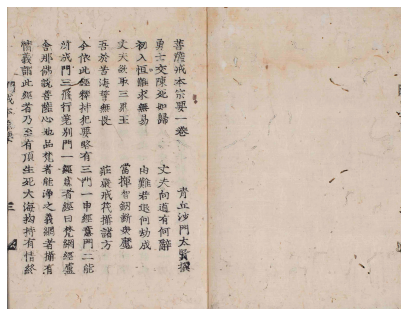
34) 大須文庫본에는 중복 필사된 2帖이 있다. 이에 서지사항 내용에 ①, ②로 기록함.

8月7日書寫畢, 장장: ①②粘葉裝, 장면: ①②1張4面, 크기: ①25×17cm, ②24.8×16.2cm 권차: ①②1卷1冊, 장수: ①10張, ②9張, 자간고: ①23×17cm, ②25×14cm, 변란: ①②無罫, 행자수: ①7行17字, ②9行17字, 판구: ①②無, 어미: ①②無, 삽화: ①②無, 계선: ①②無, 지질: ①②倭楮紙, 종이 두께: ①0.04-0.06mm, ②0.06mm, 발폭/축수: ①②보이지 않음, 색차값: ①L80.8 a+2.8 b+17.1, ②L79.9 a+2.2 b+15.8, 인기: ①②尾張國大須/寶生院經藏圖書寺社官/附點檢之印(권수와 권말에 있는 인기), 현토: 본문에 오후리가나(送り假名)로 현토됨, 주기사항: ①뒷면 표지가 결락됨. ①②의 太賢法師義記序 중에서 일부 오기가 있음. 다음의 단어들 중에서 ②가 모두 오기임. 1後1: ①乎千歲, ②乎歲; 1後1-2: ①空有各, ②空着空則遺有各; 1後6: ①其人, ②其大, ①②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이체자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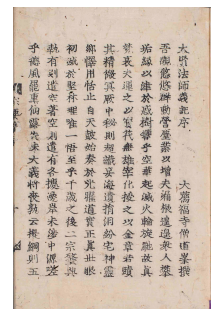
## 2.4 身延山大學校 圖書館 소장35)



[身延山大學校本 권말]



[身延山大學校本 권수]



[身延山大學校本 序]

표지서명: ①②薩戒本宗要 完, 권수제: ①②菩薩戒本宗要記序, 판심제: ①②1-2: 宗要序, 3-15: 戒本宗要, 권말제: ①②菩薩戒本宗要 一卷, 저자: ①②青丘沙門太賢撰, 판종: ①②목활자본, 간사처(자): ①②無, 간사년: ①②慶長8(1603년), 장장: ①선장(4針綴), ②선장(5針綴), 크기: ①②27.9×19.3cm 권차: ①②1卷1冊, 장수: ①②15張, 자간고: ①21.2×14.8cm, ②27.9×19.3cm, 행자수: ①②9行19字, 주: ①②단행, 판구: ①②백구, 어미: ①②상하내향 3엽화문어미, 삽화: ①②無, 계선: ①②無, 지질: ①②倭楮紙, 종이두께: ①0.03mm, ②0.08mm, 발폭/축수: ①3.7cm/16축, ②3.5cm/19축, 색차값: ①L83.1 a+3.2 b+14.4, ②L79.7 a+3.0 b+17.5, 청구기호: ①AB30-7-B, 386-1, ②AB30-7-B, 387-1, 표지: 白色表紙・白絲, 주기사항: ①②표지 하단 우측면에 묵서로 “身延本院文庫”라고 기록됨.

35) 身延山大學校 도서관에는 2개의 판본이 있다. 이에 서지사항 내용에 ①, ②로 기록함.

### 3. 「보살계본종요」 유통본 대조·연구

신라 경덕왕(景德王, 742-764) 때에 활동하였던 태현은 55여 부·122여 권의 부과·율장·대승 불전들을 주석·찬술하였다. 태현은 이들 55여 부·122여 권 중에서 유가행과(Yogācāra/유식학과(Vijñapti-mātrata))의 논서들에 대한 주석서들인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 「유식이십론 고적기(唯識二十論古述記)」, 「유가론고적기(瑜伽論古述記)」 등의 18여부·66여권을 찬술하고,<sup>36)</sup> 그리고 중국의 당시대에 유식사상의 대립관계였던 법상학과(法相學派)와 서명학과(西明學派)의 사상적 견해를 결탁하여 어느 학파에 치우침 없이 주석하므로 인하여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유가종(瑜伽宗)의 조사(祖師), 혹은 시조(始祖)격이라고 하여 신라유가조(新羅瑜伽祖)라고 칭하였다. 태현은 유가종을 대표하는 학승이었지만 그의 주석서들에는 유가행과 문헌들뿐만 아니라 시대·학과·사상별들을 초월하여 부과, 계율, 화엄, 열반, 반야, 법화, 밀교, 정토, 인명 문헌들을 주석·찬술하였다. 이에 태현을 신라유가조라는 호칭과 함께 동국의 법사라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태현이 주석하여 현존하는 5부·14권 중에서 「범망경」을 주석하면서 대승보살계의 대강을 정립하고, 대승보살도를 실천·수행하여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증득할 수 있도록 수지 및 지범개차(持犯開遮)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요(宗要)하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31부·49권이 말소(末疏)·찬술되어 필사 및 판각된 「보살계본종요」를 대조·연구하고자 한다.

「보살계본종요」는 의천이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의 기록<sup>37)</sup>에 남아 있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필사, 혹은 판본들은 13세기 초부터의 문헌들이다. 그리고 활자본은 19세기 초에 편찬된 卍續藏經과 大正藏본에 각각 입장(入藏)·수록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전래·유통되고 있는 필사·판각·활자본들은 아쉽게도 태현의 원의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표기, 각 판본별 서로 다른 오기, 각 판본별 자형이 다른 음사표기, 단어의 첨가 및 삭제, 필사과정에서 오기, 각 판본별에서 비슷한 자형으로 오기’ 등으로 교감·유통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교감·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규명하기 위하여 「고려교장 결집 및 DB 구축사업」 프로젝트 팀이 소장하고 있는 촬영본인 大須文庫본과 身延山大學校 도서관본의 목활자본, 韓國高僧集(新羅時代 2)의 목판본, 그리고 韓佛全본과 大正藏본의 금속 활자본들을 서로 대조·연구하고자 한다.

36) 金知見·蔡印幻 編, 「新羅佛教研究」(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72-75 참조.

37) 韓佛全4, 690上4.

# <약어>

身延山大: 身延山大學校 圖書館, 韓佛全: 韓國佛教全書, 韓高僧(新): 韓國高僧集(新羅時代 2), 大正藏: 大正新修大藏經.

| 身延山大本    | 大須文庫本       | 韓佛全本            | 韓高僧(新)本           | 大正藏本               |
|----------|-------------|-----------------|-------------------|--------------------|
| 1前1~15前3 | 1前1~2前7, 卷末 | 卷3-478下1~483上20 | 新羅時代2-503・1~526・6 | 卷45, 915上16~918上24 |

## 1. 서로 다른 표기<sup>38)</sup>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大須文庫 | 정보표기                                | 大正藏・韓佛全・韓高僧(新) |
|----|------------------|-----------|-------------------------------------|----------------|
| 1  | 身: 1前1<br>文: 1前1 | 太(賢)      | 大: 915上16<br>韓: 3-478下1<br>高: 503・1 | 大(賢)           |

## 2. 身延山大本の 오기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 | 정보표기                                          | 大正藏・大須文庫・韓佛全・韓高僧(新) |
|----|------|------|-----------------------------------------------|---------------------|
| 1  | 1前4  | 無    | 大: 915上24<br>文: 1前4<br>韓: 3-478下7<br>高: 503・5 | 世                   |
| 2  | 1後6  | 都    | 大: 915中4<br>文: 2前2<br>韓: 3-478下21<br>高: 504・5 | 期                   |
| 3  | 2前2  | 觀    | 大: 915中10<br>韓: 3-479上7<br>高: 504・10          | 鏡                   |
| 4  | 4前5  | (自)有 | 大: 915下11<br>韓: 3-479中15<br>高: 507・4          | (自)在                |
| 5  | 5後9  | (文)體 | 大: 916上15<br>韓: 3-480上9<br>高: 510・4           | (文)殊                |
| 6  | 6前1  | 囿    | 大: 916上17<br>韓: 3-480上11<br>高: 510・5          | 同                   |

38) 『삼국유사』에서는 대현(大賢)으로 표기. 大正藏49, 1009下25: 瑜伽祖大德大賢住南山茸長寺.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 | 정보표기                                 | 大正藏・大須文庫・韓佛全・韓高僧(新) |
|----|------|------|--------------------------------------|---------------------|
| 7  | 6前5  | 無    | 大: 916上21<br>韓: 3-480上16<br>高: 510・8 | 不                   |
| 8  | 10前4 | 作    | 大: 917上13<br>韓: 3-481中18<br>高: 517・9 | 住                   |
| 9  | 10前9 | 更    | 大: 917上18<br>韓: 3-481中24<br>高: 518・5 | 受                   |
| 10 | 10後9 | 修    | 大: 917上28<br>韓: 3-481下13<br>高: 519・4 | 行                   |

### 3. 韓佛全본과 韓高僧(新)본의 오기

| 번호 | 정보표기                   | 韓佛全・韓高僧(新) | 정보표기                         | 大正藏・身延山大・大須文庫 |
|----|------------------------|------------|------------------------------|---------------|
| 1  | 韓: 3-479上1<br>高: 504・6 | 內          | 大: 915中5<br>身: 1後7<br>文: 2前3 | 因             |

#### 4-1. 자형이 다른 음사표기

- ‘\*’ 표기가 오기임.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 | 정보표기                                 | 大正藏・韓佛全・韓高僧(新) |
|----|------|------|--------------------------------------|----------------|
| 1  | 3前8  | 舍*   | 大: 915中22<br>韓: 3-479上11<br>高: 505・9 | 遮              |

#### 4-2. 자형이 다른 음사표기

- ‘\*’ 표기가 오기임.

| 번호 | 정보표기   | 大正藏 | 정보표기                              | 身延山大・韓佛全・韓高僧(新) |
|----|--------|-----|-----------------------------------|-----------------|
| 1  | 916下24 | 密*  | 身: 9前6<br>韓: 3-481上20<br>高: 516・3 | 蜜               |

## 5. 단어의 첨가

- ‘\*’ 표기가 오기임.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      | 정보표기                                 | 大正藏・韓佛全・韓高僧(新) |
|----|-------|-----------|--------------------------------------|----------------|
| 1  | 6前7   | (比丘)戒*    | 大: 916上24<br>韓: 3-480上19<br>高: 511・1 | (比丘)           |
| 2  | 8前5   | (菩提)之(器)* | 大: 916下2<br>韓: 3-480下14<br>高: 514・3  | (菩提器)          |
| 3  | 8後3   | (先)修(治)*  | 大: 916下11<br>韓: 3-481上3<br>高: 515・1  | (先治)           |
| 4  | 11前16 | 亦(無)*     | 大: 917中8<br>韓: 3-482上1<br>高: 520・1   | (無)            |

## 6. 단어의 삭제

- ‘\*’ 표기가 오기임.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 | 정보표기                                 | 大正藏・韓佛全・韓高僧(新) |
|----|------|------|--------------------------------------|----------------|
| 1  | 10前2 | (木)  | 大: 917上10<br>韓: 3-481中14<br>高: 517・7 | 草(木)           |
| 2  | 12前6 | (捨戒) | 大: 917中27<br>韓: 3-482上25<br>高: 521・8 | (捨戒)者          |
| 3  | 14後4 | (德)  | 大: 918上15<br>韓: 3-483上9<br>高: 525・8  | (德)本           |

## 7. 필사과정에서 오기

- ‘\*’ 표기가 오기임.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 | 정보표기                                | 大正藏・韓佛全・韓高僧(新) |
|----|------|------|-------------------------------------|----------------|
| 1  | 12後5 | 言+負  | 大: 917下6<br>韓: 3-482中11<br>高: 522・5 | 讚              |

### 8-1. 자형이 비슷한 한자(大正藏본의 오기)

| 번호 | 정보표기   | 大正藏 | 정보표기                                | 身延山大・韓佛全・韓高僧(新) |
|----|--------|-----|-------------------------------------|-----------------|
| 1  | 915下11 | 穀   | 身: 4前5<br>韓: 3-479中15<br>高: 507・4   | 穀               |
| 2  | 915下12 | 近   | 身: 4前6<br>韓: 3-479中16<br>高: 507・5   | 匠               |
| 3  | 915下12 | 翳   | 身: 4前6<br>韓: 3-479中17<br>高: 507・5   | 翼               |
| 4  | 916上22 | 齊   | 身: 6前5<br>韓: 3-480上17<br>高: 510・9   | 齋               |
| 5  | 916下26 | 厄   | 身: 9前8<br>韓: 3-481上23<br>高: 516・6   | 危               |
| 6  | 917中4  | 項   | 身: 11前13<br>韓: 3-481下18<br>高: 519・7 | 頃               |

### 8-2. 자형이 비슷한 한자(身延山大本의 오기)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 | 정보표기                                 | 大正藏・韓佛全・韓高僧(新) |
|----|------|------|--------------------------------------|----------------|
| 1  | 4前1  | 及(至) | 大: 915下7<br>韓: 3-479中12<br>高: 507・1  | 乃(至)           |
| 2  | 10後8 | 義    | 大: 917上27<br>韓: 3-481下11<br>高: 519・2 | 儀              |
| 3  | 13前3 | 深    | 大: 917下15<br>韓: 3-482中20<br>高: 523・2 | 染              |

### 8-3. 자형이 비슷한 한자(大正藏본, 韓佛全本, 韓高僧(新)본의 오기)

| 번호 | 정보표기                                 | 大正藏・韓佛全・韓高僧(新) | 정보표기  | 身延山大 |
|----|--------------------------------------|----------------|-------|------|
| 1  | 大: 917中21<br>韓: 3-481上18<br>高: 521・3 | 弊              | 12前1  | 敝    |
| 2  | 大: 917中22<br>韓: 3-482上20<br>高: 521・4 | 犯              | 112前2 | 狂    |

#### 8-4. 자형이 비슷한 한자(身延山大본과 大正藏본의 오기)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大正藏 | 정보표기                   | 韓佛全・韓高僧(新) |
|----|----------------------|----------|------------------------|------------|
| 1  | 身: 13後3<br>大: 917下25 | 縵        | 韓: 3-482下8<br>高: 524・1 | 慢          |

#### 8-5. 자형이 비슷한 한자(身延山大본과 大須文庫본의 오기)

| 번호 | 정보표기             | 身延山大・大須文庫    | 정보표기                               | 大正藏・韓佛全・韓高僧(新) |
|----|------------------|--------------|------------------------------------|----------------|
| 1  | 身: 1後9<br>文: 2前6 | 身: 燈<br>文: 爍 | 大: 915中8<br>韓: 3-479上5<br>高: 504・8 | 爍              |

### 4. 나가는 말

신라를 대표한 학승・율사・선사이며, 그리고 불교의 시대별・학과별의 교학 사상에 대해 변제한 태현이 『범망경』에 대해서 주석한 찬술서가 『보살계본중요』이다. 『보살계본중요』는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망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지와 위범의 요체를 세 가지 문인 신경의문・능소성문・수행차별문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태현은 『보살계본중요』를 삼문으로 주석하면서 대승사상인 화엄, 정토, 반야・중관, 여래장, 유식, 선사상 등의 사상과 관련 경・론들을 인용・선택하여 자세롭게 계본들을 중요하고 있다. 즉, 『보살계본중요』는 단순히 대승계본만을 시설한 것이 아닌 승속이 모두 수지할 수 있는 대승보살계본으로서 대승의 각 사상과 실천・수행의 덕목들을 토대로 하여 계본들을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주석・찬술하고 있다. 이에 『보살계본중요』는 수지자들에게 지남(指南)이 되는 찬술서이다.

이와 같이 『보살계본중요』는 승가에는 수행의 덕목, 계본, 청규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하였으며, 관련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시대별・지역별・사상별의 교학과 계율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문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보살계본중요』는 동북아시아에서 사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필사・판각 등이 전개되었으며, 승려들에 의해 31부・49권의 주석서들이 찬술되었다. 또한 신라의 태현에 의해 찬술된 『보살계본중요』는 卍續藏經과 大正藏의 활자본들에 입장되어 세계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승가와 학자들에게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보살계본중요』의 판본들이 학계에 소개 및 조명되지 않아 2012년부터 『고려교장 결집 및 DB 구축사업』에서 불교 서지학

적 조사·연구를 한 조사표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학 도서관, 사찰, 문고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총 6종의 필사본·목판본·목활자본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일부 판본들 중에 교감, 판각과정, 혹은 전래과정에서 발생된 오기들이 있어서 대조·연구를 하였다.

조사·연구된 판본들은 필사본, 목판본, 목활자본의 3종류로서 모두 상태가 양호한 판본들이다. 필사본은 13세기초, 목판본은 17세기, 그리고 목활자본은 17세기초에 각각 조성되었다. 목판본과 목활자본은 같은 시대에 조성된 판본이며, 필사본은 필사자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와 동일본을 필사한 사본들이다.

이들 판본들과 활자본들을 대조하면 일부 판본들에 오기가 있다. 이체자들을 제외한 오기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로 다른 표기, ②③ 각 판본별 서로 다른 오기, ④ 각 판본별 자형이 다른 음사표기, ⑤ 단어의 첨가, ⑥ 단어의 삭제, ⑦ 필사과정에서 오기, ⑧ 각 판본별에서 비슷한 자형으로 오기'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판본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정된 판본과 촬영본으로 인하여 일부 판본들만 소개 및 연구를 하였지만 중국·한국·일본 등에 다수 소장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전개된다면 서지학적 및 불교사상적으로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제공되는 판본들에 대한 불교 서지학적 소개와 판본들 대조·연구가 『보살계본종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승사상과 계본에 대한 생산적인 후속연구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加藤觀澄 譯. 「梵網經」. 東京: 大東出版社, 1930.
- 金知見, 蔡印幻 編. 「新羅佛敎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 김천학.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70집(수원: 한국서지학회, 2017). 203-225.
- 목정배. “해제.” 『범망경술기』.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1994.
- 조명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 서울: 경서원, 1962.
- 채인환. “新羅 大賢法師研究 (III).” 『불교학보』 제21집(서울: 불교문화연구원, 1984).
- 채인환. 『韓國佛敎戒律思想研究』 (I). 서울: 도서출판 토방, 1997.
- 최종남. “戒·定·慧 三學 수행에 관한 연구.” 『僧伽』 제22호(김포: 중앙승가대학교, 2006).
- 최종남. “유가행과 문헌에 있어서 열반의 종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2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12).
- 최창술. “대현의 계율사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78.
- 한명숙 옮김. 『범망경술기』.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